

장애인 두번 올리는 광주 저상버스

운행시간 들쭉날쭉하고 운전기사 승차 거부 등 불친절 일수 투입율도 21%로 광역시 중 4번째... '인권 도시' 명성 먹칠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역 정류장에서 36번 버스 노선의 저상버스를 기다리던 지적 장애인 김한호(39·광주시 동구)씨는 최근 저상버스 도착시간이 오후 3시에 맞춰 나왔다가 낭패를 봤다. 예정시간보다 5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버스가 도착한데다, 이마저도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버스기사에게 "이번 버스를 놓치면 2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하니 제발 좀 태워달라"고 사정을 한 끝에 겨우 버스에 올 수 있었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서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 김병희(36)씨도 저상버스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직장인인 김씨는 "저상버스를 타려고 휴대폰에 버스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배차시간이 달라 도무지 버스시간에 맞춰 버스를 탈 수가 없다"면서 "버스 내에 있는 휠체어 탑승 공간도 일반 승객들로 가득차 출퇴근 시간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게 인

권의 도시라는 광주의 민낯"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운행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은 다반사고, 장애인 승객을 마주하는 버스운전기사의 불친절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부족한 운행대수와 배차시간 등에 쫓긴 버스운전기사의 부정적 인식 때문으로, 장애인들은 버스환승서비스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는 총 101개 노선에 99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중이다. 이중 저상버스는 35개(34.6%)노선에 213대(21.3%)가 투입돼 있다. 광주의 저상버스 투입률은 지난해 기준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인 4번째로, 서울이 44.4%로 가장 높고 대구(39.4%), 대전(27.5%), 부산(22.4%), 광주(20.5%) 인천(16.9%), 울산(12.9%) 순이다.

광주시는 올해 기준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으로 26억 60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운행대수가 20%대에 그치다 보니,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저상버스 이용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이 한정돼 있어 환승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또 환승이 가능하더라도 환승시간이 30분 내로 한정돼 있어 다시 요금을 내야 한다"면서 "버스를 타러 가는 길도 인도와 보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더욱 그 자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장애인들은 "바쁜 시간대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바쁘게 빨리 빨리 타라" 등이 저상버스 기사들로부터 흔히 듣는 불친절한 언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광주에서 총 149대가 운영중인데, 인기가 많다 보니 평균

적으로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만 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예약이 많은 탓에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장애인들의 얘기다.

저상버스 관련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와 광주시도 저상버스 확대를 추진중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배치율을 45% 수준까지 권장한 상태로, 광주시는 일단 올해 3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박성철 광주시청 대중교통 담당은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운영을 독려하지만 예산은 똑같은 수준"이라며 "지원예산 한계로 저상 버스 운행률을 더 올리는 힘든 실정이다. 시내버스기사의 불친절한 사례는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광주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기존 시내버스를 폐차하고 새로운 버스를 구매할 때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개발돼 있는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노선의 다양화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불출석 허가 신청...재판부 선택은?

내달 형사재판 앞두고 제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23일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 있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장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

가할 때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재판부에서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피난 회고록에서 조 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법 "의료과실 일부만 인정돼도 환자에 병원비 청구 못해"

의료과실로 병세가 나빠져 후속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더라도 병원은 책임한도를 넘어선 병원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박 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다'라며 유족을 상대로 밀린 병원비 9445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확실히 필수적인 조직검사도 없이 폐절제를 폐암으로 단정해 폐절제 수술을 했다"며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병원이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과실 책임 30%를 넘는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됐더라도 병원은 환자에 대해 병원비 중 병원의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피의자에 수사사항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팀장 대기발령

광주지방경찰청의 한 팀장이 수사 사항을 피의자에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대기 발령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모 부서 소속 김 모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김 팀장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조사를 위해 임시로 인사조치했다. 김 팀장은 다른 팀에서 조사 중이던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수사 사항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줬는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DMZ평화인간띠운동 광주·전남본부가 24일 광주시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분단 종식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본부는 27일 경기도 DMZ 일대에서 진행되는 전국 인간띠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DMZ 평화인간띠 잇기, 평화통일 밑거름 되길"

광주·전남본부 기자회견

오는 27일 임진각 출발을 앞두고 있는 'DMZ 평화인간띠운동 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본부)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프로젝트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했다.

광주·전남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989년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은 소련에게 독립을 요구하며

국경 620여km 구간에서 200만 명이 인간띠를 잇는 평화 시위를 벌였고 결국 독립을 쟁취했다"며 "우리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오는 27일 서해 강화도에서 동해 고성까지 500km를 잇는 인간띠 운동을 펼쳐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불러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광주·전남에서는 2000

여 명이 참여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 생태탐방로 구간(5km)에서 인간띠를 잇는다. 미처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홈페이지(gndmzpeacechain.com)나 광주·전남본부 SNS '페이스북'(해시태그 #dzmpeacechain)에 올리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시행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019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마음챙김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민교육은 무엇인가요?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업과 자신만의 콘텐츠, 영상 제작 기법 등의 수업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 모집개요

자격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모집인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우선)	미래사회의 준비된 나, 마음발견, 감정탐색, 1인 미디어 개론, 현역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영상기획, 촬영, 편집, 현장 견학 등	48시간	20명
- 모집기간 2019. 04. 08(월) ~ 2019. 04. 23(화) ■ 교육기간 2019. 04. 24(수) ~ 2019. 08. 07(수)
- 교육시간 매주 수 18:00 ~ 21:00 ■ 교육장소 광주여자대학교 강의실 및 실습실
- 교육특전 교육비 지원,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메일 접수(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접수처 우) 62396 광주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의 062) 950-3583~5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